

韓國 鑛山俗語 集攷

——특히 鑛山地質學用語의 資料로서——

柳 炳 和

Description of Mining Dialect in Korea

Rew, Byeong Hwa

1. 緒 言

接觸交代鑛床의 脈石의 特徵인 石灰와 마그네시아를 主成分으로 하는 珪酸鹽鑛物의 集合體에 對하여 스카른(Skarn)이란 말을 쓴다.⁽¹⁾

스카른이란, 本來 中部스웨덴의 Persberg 鑛山에서 鑛夫들이 使用하던 俗語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 地方의 俗語가 오늘날 거의 全世界에서 使用하는 學術語로 發展한 좋은 본보기가 될 말인 것이며, 韓國에서도 이와 비슷한 事情下에 있는 말로서 막장·동발·버럭같은 것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먼저, 韓國鑛山俗語의 發生과 成長의 背景이 될, 韓國鑛業史를 잠깐 더듬어보기로 하자.

筆者는 韓國鑛業史를 다음과 같이 5期로 區分하는것이 各時代의 技術史의 特徵과 鑛山俗語의 由來를 說明하는데 便利하리라 생각된다. 卽,

- 1) 黃金鄉時代(上古三韓時代~1429)
 - 2) 金銀禁採時代(1429~1867?)
 - 3) 鑛業特許時代(1867?~1910)
 - 4) 日帝強占時代(1910~1945)
 - 5) 現代(1945~)
- 1) 樂浪古墳의 出土品인 金象筩銅管, 鐵簇 其

他 金銀裝身具等으로 보나, 또 扶餘는 產金國이었고, 辰韓에서는 金銀產出은 勿論, 鐵의 輸出 및 市場去來가 盛行하였다는 등의 史實로 보아, 그 淵源을 上古三韓時代로 하여 거의 二千年을 헤아리는 韓國鑛業史는, 主로 金銀鑛業史로써 點綴되어있어 韓國은 古來, 黃金鄉으로 알려져 있었다.

2) 그러다가 李朝世宗 11年(1429)에 이르러, 大王은 王弟 誠寧君을 派明하여, “金銀은 本國의 產物이 아니라”고 主張케 함으로써, 그때까지 千餘年을 繼續하여 中國歷朝에 바쳐오던 莫大한 量의 金銀朝貢단은 비로서 芻하게 되었으나, 反面에, 金銀의 採掘은 勿論, 그에 關한 記錄까지도 無條件嚴禁하는 愚를 犯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나마 原始狀態였던 鑛山技術은 거의 絶滅의 悲運을 겪게 되었을 것이고, 그 뒤 軍事部門에서 그렇듯 長足の 發展을 거듭했던 火藥技術도 鑛業部門에서는 빛을 볼 機會가 全然 없었던 것이다.

그뒤 明이 滅亡하고, 그대신 淸이 中原을 支配하게 되자(1644), 李朝는 淸과의 和親을 爲한 必要와 收稅의 目的으로 孝宗 2年(1651)에는 產銀處를 두어 銀을 採掘케 했고, 肅宗朝(1675~1720)에는 各產地에 金店과 銀店을 勸獎했으며,

(1) 註美國에서는 헤쓰(F.L. Hess, 1919)以來, 炭酸鹽岩(石灰岩, 돌로마이트等)이 接觸變質되어 만들어진 珪酸鹽岩을 總稱하여 텍타이트(Tactite)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美國以外에는 거의 쓰이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韓國에서는 김선억, 오인섭, 이인영[여미산광산 조사보고(지질광상 조사보고 제 8호): 국립지질조사소(1965) p. 159~204]들에 의하여 쓰여진바 있다. 그리고 스카른이 石灰와 마그네시아의 成分을 具備要件으로 하는 概念임에 對하여, 텍타이트는 그러한 成分上의 制約을 받지 않고 모든 接觸珪酸鹽岩에 두루 쓰이는 用語인 點이 다르다.

英祖 17年(1741)에는 銅鑛까지도 採掘케 했으나 모두 官營으로서 金銀採掘의 完全解禁에 이른것은 아니었다.

3) 그뒤, 高宗朝(1864~1906)初頭に 와서, 當時 國政의 大權을 獨占한 大院君 李昰應(執政期間; 1864~1874, 距今 100年前)은 景福宮重修(1867年 竣工)等으로 800萬兩이란 巨額을 浪費하고, 그로 因한 國庫의 損失을 挽回하고자 李容翊等의 進言을 받아들여 비로서 400年來 繼續되던 金銀의 禁產政策을 完全히 撤廢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特許란 이름으로 金鑛을 爲始한 모든 鑛業活動의 門戶가 開放되었다고는 하나 制度的으로 허술하였던 當時에는, 利權爭奪로 因한 鑛業行政 및 稅收行政의 亂雜과 橫暴가 極에 達하여 끝내는 鑛業法과 同施行令 및 砂鑛採取法의 制定公布(1006年 7月)를 促求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政府鑛業施策의 卒劣한 運營으로 말미암아, 國內鑛業人이 크게 萎縮된 反面, 外國人의 韓國鑛山에의 進出이 顯著해져서 政府는 그들에게도 採掘權을 許與해주는 일이 많았다. 그들 外國人은 主로 歐美人들로서 金銀禁探時代 即, 韓國의 鑛業이 窒息狀態에서 허덕일 때에, 文藝復興·宗教改革·地理上發見에 뒤이어 各種發明과 產業革命等, 文明開化의 激動을 겪고 產業과 技術面에서도 巴야호로 近代化作業을 거의 完成한 이들 西歐文明國들은, 이른바 列強에 依한 未開地經營을 着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鑛業에까지 손을 뻗치게 된 그들 外國人은 意慾으로 投入되는 資本과 優秀한 先進技術을 歐使하여, 그때까지 아직도 오랜 잠에서 덜 깬 既存의 韓國鑛業을 壓倒하고 그 主導의 位置에까지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韓國人自身에 依하여 經營된 鑛山은 極少數에 不過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外國人에 依한 韓國鑛山의 蠶食과 아울러, 그로 因한 金銀의 海外搬出이 盛行하여 結果적으로 民族과 國家의 富를 어이없이 掠奪함으로서, 獨立國家의 面目을 땅에 떨어뜨리게 한 부끄러운 歷史의 原因으로서는, (1) 오랜 黨爭과 勢道政治의 惡風으로 因하여 어지러워진 國政과 特히 鑛業政策의 亂脈狀, (2) 오랜 金銀禁

探政策으로 因한 鑛業技術의 後進性, (3) 事大主義와 國防力의 虛弱性, (4) 大院君以來의 濫費로 因한 極度에 達한 國庫의 貧困, (5) 吏道의 頹廢等을 들 수 있다.

4) 그러던 가운데, 1910年 8月 29日 日帝가 韓國의 國權을 強奪하고 國土를 強占한 所謂 韓日合併을 거친 다음부터는 日帝의 그 侵略野慾은 드디어 鑛業政策面에서도 露骨的, 積極적으로 나타나서 韓半島內의 鑛業은 그 大部分이 侵略者에 依하여 그들을 爲한 새로운 盛況의 時代를 마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時代의 初半에는 오늘날과 같이 鑛業技術의 分化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所謂鑛山學에 關한 專門的教育을 받은 이른바 鑛山技師가 나타나서 모든 鑛山技術, 特히 探查技術의 偶像으로서, 또 마치 占쟁이와 같은 神通力을 가진 存在로서 神格化되었던 것 같으며, 그에 따라 鑛業史에 길이 남을만한 功績도 많았겠지만, 反面에 오늘날에 와서는 한갓 苦笑를 禁치 못하게 하는 傳說的 에피소드와 돈·끼호테의 遺風을 많이 남기었던 것도 事實이다.

5) 그러다가, 1945年 8月 15日의 民族解放에 이어, 1948年 8月 15日의 政府樹立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獨立韓國으로서의 所謂 現代韓國鑛業史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韓國鑛業史를 도리켜볼때에 現在 우리가 接觸할 수 있는 韓國鑛山俗語의 發生時期는 그 語彙의 構成이나 時代的 狀況으로 보아, 大體로 禁探時代로부터 日帝強占時代에 걸치어 있는 것으로 推測되며, 그중에서도 特許時代末期로부터 日帝強占時代前半期에 걸쳐 發生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理由로서는 特히, 鑛業의 活況과 아울러 그 當時 一般的으로 教育水準이 낮았던 鑛夫들이 外國語는 勿論 專門用語에도 生疎하였을 것이고 또한 익히고 쓰기에도 까다로웠을것이기 때문에 그들, 相互間에 不便없이 쓸 수 있는 그들自身만의 말이 必要하였을것이 넉넉히 想定되고도 남음이 있는 때문이다.

筆者는 지난 10年間, 國內 여러곳의 鑛山地帶를 踏查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많은 鑛山俗語를 들어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과 對話를 갖는동안, 格別한 興味를 가지고서 意識적으로 될 수 있는限 새롭고 많은 鑛山俗語를 얻어들을 수 있도록 努力하였으며, 또 그때마다 이를 野帳에 記錄하여 두었고 다시 그것을 노오트에 整理하여 두었던것이 이력저력 數百語에 達했다. 그러던中, 近來 鑛山地質用語가 물밀듯이 輸入됨에 따라, 그 使用이 無批判의이며 混亂과 갖가지 弊端을 招來한 나머지, 韓國鑛山地質用語의 整理와 統一이 時急히 그리고 切實하게 要望되게 되었고, 그러한 事業에 자그나마 하나의 資料로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希望과 期待에서 이를 發表하고자 마음먹게 된 것이다. 이러한 希望과 期待는 文敎部의 과학기술용어집 제 6집(전기공학·채광학 용어집)에도 그 몇가지 先例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決코 無意味하지 않다는 것을 首肯케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好奇心과 興味가 當初의 動機였으며 研究나 發表가 그 目的이 아니었기 때문에, 語彙의 採集과 整理過程에서 口述者와 日時, 場所等 根據에 관한 記錄을 疎忽히 한 點에 對하여는, 曷상 發表하는 마당에 즈음하여 後悔莫及이며 大端히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本稿는 어디까지나 韓國傳來鑛山俗語의 一部 採集結果에 對한 紹介에 不過하며, 多少 筆者의 所見이 插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本格的이고 또 體系的인 研究結果가 아니라는 點을 強調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 發掘되지 않은 俗語의 採集을 包含한 韓國鑛山俗語의 徹底한 體系的 研究를 앞으로 크게 期待함과 아울러 多少라도 그러한 研究에 本稿가 도움이 된다면 더以上 없는 幸으로 삼겠다. 筆者가 재주없고 배운 것 또한 不實(不實)한 탓으로 많은 잘못된 點이 있을 것임으로 次後의 改稿를 爲한 忌戰없는 指導를 바란다.

2. 用語使用에 對한 管理

1) 日製俗語使用에 對하여

韓國의 石炭鑛業이 記錄상으로 나타나기는, 1896年 咸南慶源郡과 鍾城郡에 對하여 러시아인 政府로부터 採炭許可를 받은 것이 그 始初인 것 같으며 그 本格的인 勃興을 보게 된 것은 日帝

強占時代에 들어와서 日人에 依하여 政策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勿論 오래前부터 平野地方에서는 土炭(泥炭)을 採取하여 甞감으로 利用하거나 產地附近部落人에 依하여 조금씩 採掘된 石炭이 陶瓷器를 굽는 燃料로 使用된 일도 있었고 特許時代에 들어와서도 外國人에 依하여 石炭資源에 對한 많은 關心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그 形態가 鑛業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은 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鑛山俗語中에서도 炭鑛特有의 俗語는 그 大部分이 日帝強占時代에 使用되었던 日語自體이며 國權이 獨立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變換없이 口傳繼承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日製俗語가 어떠한 面에서 到底히 韓國語일 수 없음은 너무나도 自明한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周邊에서 흔히 이러한 種類의 日製俗語를 使用하고 또 取扱하는 일을 볼 때에, 于先 寒心스러운 感을 禁할 수 없다. 近來에 어떤 炭鑛의 落盤事故를 報導하는 所謂 一流新聞의 記事中 犧牲者를 알리는 대목에서 先山夫니 심지어는 사끼야마, 아도무끼니 하는 말을 泰然히 쓰고 있었던 것을 본 일이 생각한다. 鑛山用語에 있어 아직도 손질을 할 곳도 많았고, 그러한 鑛山用語를 能히 알고 쓸 수 있는 記者가 別般 있을 것 같지 않은 現下의 實情을 考慮할때 그러한 事實은 어떻게 보던 있을 수도 있는 現象이라 하겠으나 적어도 一國文化의 先導役을 自處하는 所謂 一流大新聞에 있어서는 그 權威에 관한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끼야마(先山)니 아도무끼(後向)니 하는 말은 坑內의 掘進夫或은 採炭夫와 그 助手를 가리키는 日製俗語이며, 더욱이 被壓迫時代의 殘滓中 하나로서 分明히 우리말이 아니다. 비록 그러한 말을 一部 沒知覺한 鑛夫나 實務者들이 使用하고 있다 하더라도, 公器의 使命을 띤 言論의 言語使用態度로 볼때, 이를 이렇듯 無批判의 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줄 안다. 그밖에도 事例를 들자면 限이 없다. 심지어 一部 專門의인 敎科書에서까지도 그러한 部類의 俗語를 著者가 別로 檢討한 痕跡도 없이 다만 後學으로 하여금 理解에 便하도록 돕는다는 理由로 無責任하게 紹介함으로써 結果的으로 日製俗語使用을 助長하

고 있는境遇도 있으니 말이다.

勿論, 一般論의 見地에서 볼때, 先進文化圈으로부터 後進文化圈으로 모든 文物이 流入되는 現象은 歷史上으로도 너무나 當然하게 보아오는 일이지만 그것도 境遇와 程度의 問題다.

폴랜드의 眼科醫師이며 言語學者인 자멘호프(Lazarus Ludwig Zamenhof, 1859~1917)⁽²⁾에 依하여 1887 年에 創製發表된 國際語 에스페란토(Esperanto)는, 그 造語形式과 16 條文法이 極히 合理的이고 簡明하여 學習과 使用에도 쉽고 能率의 이기 때문에 여러 國際語中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共認되어 있으며, 거의 全世界에 걸친 普及網을 가지지도 이미 半世紀를 헤아리게 되는 데 韓國에도 꽤 오래前에 上陸된 것 같다.

그런데, 에스페란토가 그렇듯 便利하고 거의 完璧한 言語임에도 不拘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不便하고 어려운 모든 既成土着語를 代身해서 널리 使用되지 못하는 理由는 아주 簡單한데에 있다. 即 에스페란토는 모든 既成土着語가 가지고 있는 歷史와 傳統과 文化와 生活과 感情과 人情이 없는 다시 말하자면 皮가 돌지않고 숨이 通하지 않는 全혀 人爲的인 言語인 때문이다.

韓國語에는 韓國語에만의 固有한 歷史와 傳統 文化와 生活人情과 感情等, 이른바 韓國의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때문에, 意味論(Semantics)의 側面에서 볼때에, 一般鑛山俗語는 勿論 專門用語에 있어서도 그것이 日帝때 使用되던 殘滓的인 말일 境遇, 그 말도 客觀的 意味(語意)外에 主觀的意味(言語感情)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即, 過去日人에 依하여 強占되고 榨取 當하고 差別當하고 抑壓되었던 屈辱과 悲憤의 回想을 지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生活에 있어서도 우리는 體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主著없는 것이 있어서도 안되겠거니와 우리의 科學技術活動은 되도록

이던 우리格式에 맞는 말로서 이루어질 것이 期待되는 바이며, 또 그러한 바탕위에서라야만 그러한 科學技術도 참된 우리自身の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勿論 때에 따라서는, 우리말만으로서서는 表現上의 困難을 겪을때가 있을 것임으로 이런 境遇에는 日語든, 英語든, 또 그밖의 다른 言語이든間에 모두 同等하게 取扱하여 主體的인 眼目으로 綿密한 檢討를 거침으로서, 表現上의 效用性을 살릴 수 있는 外來語로써 包容할줄도 아는 雅量 또한 있어야 하는것이 文化國民의 矜持요, 智慧 일 수 있다는 것도 事實이다.

2) 漢字用語의 使用에 對하여

흔히 보는 일이지만, 한글로 表記하는 便이 그 傳達效果面에서 볼때에 훨씬 有利한데도 不拘하고, 例를 들어 鑛山俗語의 하나인 막장을 莫場으로, 생각을 生覺으로 表記함과 같이, 굳이 漢字를 써야만하는 術字的, 貴族의 眞書趣味가 相當히 뿌리깊게 우리들 周邊에 도사리고 있음을 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 反面에, 漢字는 中國文字이고 漢字語를 使用함은 非愛國이라고 極言을 하면서까지 漢字語를 無條件 排擊하는 見解나 態度 또한 警戒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많은 로오마字 使用國民이 그들의 愛國心에 對하여 아무런 疑心도 받는일이 없이 몇몇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들의 文字生活을 營爲하고 있는 바와같이 오늘날의 漢字는 이미 그 發祥地인 中國에만 머물지 않고 東南亞一帶에 있는 漢字 使用國 共通의 文字가 된 것이며, 韓·中·日 등의 代表的인 漢字使用國은 各其 獨特한 漢字語를 그 國語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漢字는 中國만의 文字일수도 없으며, 우리말 漢字語도 모두가 다 外來語의 取扱을 받을수가 없는것은 當然한 常識的인 論理요, 現實인 것이며, 또한, 그 使用이 非愛國일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2) 자멘호프의 이름을 國內의 一部 에스페란토紹介 pamphlet에서 루도빅·자멘호프라고 쓴 일이 있는데, 루도비히·자멘호프 또는, 에스페란토식으로 루드비코·자멘호프(Lazaro Ludviko Zamenhof)라고나 해야할 이름이 이렇듯 通用을 하게 된것은, 日人著者에 依한 루도빅·자멘호프式的 誤記를 考準없이 剽竊輸入한 所致라 생각되는데, 이런것은, 젤라틴(Gelatine)이 제라틴(ゼラチン), 홈런(Home run)이 호무랑(ホオムラン)으로 通하는 境遇와 같이, 西歐文物을 日本을 通하여 再輸入한 結果가 얼마나 喜劇的이며 엉뚱한가 하는것을 새삼스러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것이다. 오히려, 純粹韓國語를 勸獎愛用한답시고 어설피게 復古調의 死語를 使用함으로써 幼稚할 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觀念世界로 退嬰하거나 無理한 複合語를 濫造使用케 함으로서 事物의 概念을 模糊하게 하는쪽이 民族文化의 將來를 亡치는 非愛國的인 獨善이며 狂態가 아닐 수 없다. 漢字語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다 우리 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勿論, 難澁한 漢字語를 勸獎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는 한편, 可及의이며 한글로 된 말을 복돋아서 키워나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矯角殺牛格으로 漢字語가 함부로 抹殺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言語는 그것이 五欲七情을 가진 사람에 依하여 歐使되는 것인 以上, 自然的으로 發生·消化·吸收·淘汰의 過程을 거처야 하는 것이지, 人間이 機械일 수 없는 以上, 에스페란토와 같이 人爲的으로만 製造되어서는 않될 本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學界나 實社會에서는, 火成岩·水成岩(堆積岩)·變成岩이란 말이 別故障없이 固定化되어 使用되고 있는데, 어째서 國民教育過程에서는 불에 된 바위·물에 된 바위·변해된 바위와 같은 駭怪한 말을 만들어서 가르쳐야만 하느냐 말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國民生活에 必要한 基礎的인 初等普通教育”이라고 하는 것인지, 獨善과 橫暴도 이에 이르면 啞然하다못해 戰慄을 祭치 못하게 한다.

勿論 漢字는 그 表意性乃至 表語性·視讀의 能率性·神符의 魅力과 그 效果等の 長點 또는 特色과 아울러 尤大한 漢字文化의 歷史·傳統·習慣이란 크나큰 制約이 嚴存함에도 不拘하고 그것의 學習 및 使用上의 難解性과 非能率性에 起因된 文化全般에 걸친 甚大한 害毒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根本的인 理由로 하여 漢字全廢論이 沸騰하고 있음을 決코 看過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近來에 와서는 漢字全廢 및 한글專用運動을 政府에서도 強力하게 推進하고 있으며, 一部 言論界에서도 漢字의 漸進的 制限을 이미 實踐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한글專用으로써 現在의 國漢混用體裁의 缺陷은 是定된다고 하더라도 尤大한 漢

字文化의 遺産과 習慣을 遺憾없이 料理해 내기에는 오늘날의 한글表記方法이 너무나도 다듬어지지 않고 있음을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볼 수가 있다.

即, 洋傘과 量產·懷疑와 會議 京畿와 競技·原始와 遠視等은 各各 한글로서는 同一한 表記를 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 洋과 量·懷와 會에 있어서는 나중의 文字가 앞에것보다 母音이 길게 發音되며 京과 競·原과 遠에 있어서는 나중의 文字가 앞에것보다 그 母音이 길게 發音될뿐만 아니라 音價까지도 다르다.

이와같이 漢字로 單語를 表記하여 國漢混用을 할 때에는 別로 問題가 안되던 現象이 한글로만表記할 때에는 母音의 長短과 音價마저 判異한 單語들 사이에도 同一한 表記形式을 取할 수 밖에 없는 境遇가 많이 생기게 됨으로서 結果的으로 音價로 볼때에는 分明히 異音異義인 單語가 表記手段의 不備로 因하여 마치 同音異義語처럼 行勢하게 되고 이렇게 하여 생겨난 同音異義語의 氾濫은 結局言語生活의 混亂과 文化的 跛行을 招來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弊端을 미리 막고 한글專用을 效果的으로 實現하기 爲해서는, 現行한글表記法에 (1) 母音의 長短의 區別表記方式 (2) 各單語固有音價의 區別表記方式等이 于先 補強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日本이 漢字撤廢를 망설이면서 겨우 그의 制限使用에 머물게 된 것도 이러한 同音異義語의 洪水가 두려움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면에서 볼때 母音의 長短까지도 表記된다는 梵字(Sanskrit)는 確實히 優秀한 表音文字임에 틀림 없을 것 같다.

以上 말한바와 같이 한글專用은 徹底한 專問的 研究와 檢討下에 이루어져야만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을 것은 勿論, 이러한 先行條件의 解決없는 한글專用의 強行은 大端히 危險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한글은 世界에서도 有數한, 훌륭한 音素文字임에도 不拘하고 오랜 漢字生活의 影響으로 因하여, 世宗大王의 創製頒布以來로 꼭 音節文字形態로 빌어서만 組立使用되어 왔었다는 不

합리성과 非能率性은 우리의 文字生活과 文字史에 있어서 하나 큰 失策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글의 進路에 關하여 理想을 말한다면 于先은 한글專用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가로 풀어쓰기일 것이며, 끝내는 한글의 로오마字化일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로오마字化의 움직임은 이미 漢字의 制限使用을 제나름으로 實施中인 日本에서도 오래前부터 識者間에 擡頭되어 있었던 바이며, 漢字發詳地域이 되는 中共에서조차도 이러한 로오마字化가 進行中이라는 報道가 한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볼때 韓國語가 當面한 課題는 무엇보다도 먼저 漢字의 漸進的 廢止와 한글專用일 것이며, 이 둘은 結局 同一過程의 兩側面에 不過한 것으로서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極히 慎重히 다루어야할 對象으로 보는 바이다.

3. 韓國 鑛山俗語에 對하여

本稿에서 鑛山俗語란 말을 쓴 것은, 그것이 通俗的으로만 使用되어왔고 專門用語로서의 待接을 받아보지 못한 鑛山用語인 까닭이다. 그 中에는 外來語도 있으나 이미 우리말로써 吸收固定된 것에 限하였으며 一部 外國의 鑛山俗語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使用된다고 해서 그것까지를 包含시킬 수 없음은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다.

本稿에 收錄된 鑛山俗語集의 語彙는 모두 584語로서 이 가운데에는 嚴格히 鑛山俗語라 하기에 躊躇되는 말도 있으나 그것이 鑛山地質學用語로 充分히 應用될 수 있는 말인것은 그대로 採用하였다. (진흙·질흙·찰흙따위)

各單語의 出顯頻度는 亦是 모두 다르며, 동발같은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었으나, 마사버럭이란 말은 中峰銀山(江原道 三陟郡 下長面·下臨溪 東南方)附近的 鑛夫出身인 한 村老에게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들 鑛山俗語의 特徵을 大略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俗語의 大部分이 金銀鑛山에서 主로 쓰히던 것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金銀鑛業이 그 中樞였던 韓國鑛業史의 一面을 反映한 것으로 생

각된다.

2) 外來語에 있어서, 그 發音이 엉뚱한 꼴로 轉訛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外國語는 勿論 專門的이며 體系의인 知識과 技術에 對한 教育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鑛夫들만의 社會에서 鑛山俗語가 使用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現象으로 解釋된다. (쌌=쌔=고든쌔=쌔=Shaft·게추=Clage)

3) 元來는 鑛山俗語가 아니었던 말로서, 그 本來의 뜻이 擴張되어 鑛山俗語化한 것이 있다. (동발: 이 말은 본디 우물마루의 長線이를 바치는 짧은 기둥을 뜻한다. 마구리: 이 말은 본디 길쭉한 物體의 兩端面을 뜻한다.)

4) 直觀的·感覺的 表現을 가진것이 많다. (기름기계·南北脈·東西脈·소금줄·곰보깃돌)

5) 標準語의 定義가 “現代·서울·中流社會의 通用語”인데 對하여 鑛山은 各地方에 散在되어 있는 까닭에 한가지 概念을 表現하는 데에도 여러가지의 方言만을 가진 境遇가 많으며, 따라서 標準語設定은 매우 困難하다.

6) 韓國鑛業史의 흐름을 直接反映하는 말이 있다. 鉛商이 그 例로서, 이 말은 元來 禁探時代에 鉛探掘을 假裝하고 銀을 密探·密賣하던 者들을 指稱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의 財力이 肥大海집에 따라 德大들에게 資金을 대주는 錢主구실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뜻으로 使用되기에 이른 것이다.

7) 한글말과 漢字語가 無理없이 結合되어 생긴 複合語가 많다. (곰보石·굿德大·굿服·東마구리·되水銀)

8) 漢字語音이 엉뚱하게 轉訛된 것이 있다. (사발시재=사발세근=사발시근=沙鉢試金)

9) 語源이 分明치 않은 것이 많다. 따라서, 이들의 語源에 對한 研究를 앞으로 期待하는 바이며, 于先 그 語源說이 區區한 노다지를 例로 들어본다.

노다지란 말은 그 語意가 풍기는 魅力때문에 그 語源에 關해서는 심심치 않게 여러가지 俗說이 戲弄되어 왔다.

첫째, 노타치(No tutch)說이 있다.

有名한 金鑛地帶의 하나인 平北 雲山郡一圓에

對하여, 1896年 4月 舊韓國政府와 共同으로 會社를 設立함과 同時에 政府로부터 25年間 有效한 一切鑛物의 採掘權을 얻어 經營했던 모오스 (James R. Morse)等 美國人들이 어느날, 自然金의 大粒이 稠密하게 박힌 高品位金 鑛石을 坑內에서 새로 發見하자, 반가운 나머지 發하게된, 손대지 말라는 嘆聲이 곧 이렇듯 노다지로 訛傳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何必이면, 돈·타치 (Don't tutch)도 아닌 노·타치 (No tutch)였느냐는 點도 疑訝스럽지만 얘기自體가 희며운 데가 있어 都大體 미덥지가 않다.

둘째로 노다찌(野立)說이 있다.

土田(文獻 12)의 主張에 依하면, 韓國에서 鑛山을 經營한 最初의 外國人으로서 1891年 10月 慶南 昌原郡下 馬山金山(後에 龍藏金山 또는 龍潭銅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함)에 對하여 10年間의 採鑛權을 特許받아 操業에 着手하였던 日人 馬木健三(一說에는 馬木健藏이라 함)이 데리고 온 日人鑛夫들에 依하여 노다찌(野立)라는 日本東北地方의 鑛山俗語가 傳來되어서 끝내는 노다지로 音이 訛傳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土田은, 그가 노다찌說을 主張한 同一한 페이지에서 동발이란 말도 同一한 由來를 가진 돗바리(突張)에서 온 말이라고 主張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도 나온바와 같이 너무나도 그 語源이 自명한 純韓國語인 동발에 對해서 구태어 日本語가 그 語源인 것처럼 억지를 쓰는 그의 意圖와 態度에는 疑訝를 넘어서 可憎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다른 理由를 더 들것도 없이 그의 노다찌說은 虛構일 可能性이 짙다.

셋째로, 쏠다지 說이 있다,

詩人 趙芝薰에 依하면(文獻 6)노다지의 노는 恒常과 完全히란 뜻을 가진 副詞이고 다지는 方言에 있어서 名詞를 만드는 強勢接尾語인 때문에, 이 둘이 結合하여 不純物인 脈石이 섞이지 않은 純金만의 完全한 物件을 뜻하는 노다지로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亦是 그 說得力에 있어서는, 上記諸說과 大同小異하다. 이리하여 結局, 노다지의 語源에 對하여는 아직도 定說이 없는채로 있

는 것이다.

끝으로, 別段 韓國鑛山俗語集은 大略 다음과 같은 要領에 依하여 整理되었음을 밝힌다.

① 總 584個의 語彙는 辭典形式을 取하여 가나다順으로 配列함으로서 鑛山俗語辭典구실도 하게 했다.

② 表題語에는 視覺的 便宜上 고딕體를 使用했고, 여러개의 方言으로만 되어있는 異音同義語에서는 其中 標準語法에 가깝거나 慣用頻도가 比較的 높은 表題語에만 解說을 붙였다.

③ 表題語中 漢字語는 于先 한글로 表記하고, 바로 다음에 ()를 붙여 그안에 漢字를 併記하였으며 國漢混合語일때는 該當漢字를 區別하기 쉽게 뒷쉬(-)標를 兼用하였다.

④ 發音을 나타낼 必要가 있을때에는 []內에 必要한 表題語의 音價를 한글로 나타냈으며 여기에서도 該當音價의 區別을 爲하여 뒷쉬를 利用하였다.

⑤ 讀者가 主로 鑛山地質專門家일것을 考慮하여 語意解說은 이미 널리 알려진 韓國語·英語或은 日語中 適當하다고 생각되는 對應用語로 나타냄을 主眼으로 삼아 될수록 詳述을 避했으나 꼭 必要한 때에는 解說文을 붙였다.

⑥ 解說文中에는 ()를 두어 日語로 된 解說語에는 日語發音을 所謂 가다가나(片假名)로 또 韓國語로 된 解說語에는 對應되는 英語等을 그 안에 넣었다.

⑦ 語意가 여러種類인 것은 ①②③等으로 區分하여 解說하였다.

⑧ 語源을 나타낼 必要가 있을때는 < >內에 이를 나타내게 했고, 日語系는 (日), 폴튜갈語系는 (폴)等の 符號를 併用했으며, 화살표(→)로는 語源의 變化過程을 說明하였다.

韓國 鑛山俗語集

가력되다 沙汰같은 것으로 덮이다.

간데라 Acetylene lamp <(폴)Gandeila>

간드레 간데라

갈개 坑內의 작은 排水溝 Drain

갈개치다 갈개를 만들다.

갈 ① 甘石, ② 甘土.

감돌 [감돌] 甘石.
 감석 (甘石) 鑛石·씻돌.
 감토 (甘土) 砂金層 또는 土金層.
 감흙 甘土.
 깡 雷管, <<(日)ライカン→カン>>
 강목 岩盤 또는 貧鑛帶.
 강목치다 강목을 掘進하다.
 깡몰리다 심지를 깡에 몰리다.
 깡집게 깡몰릴때 쓰는 집게.
 개 (介·個·箇) 地金の 重量單位.
 수동이 參照.
 개금 (—金) 金色을 띤 酸化黑雲母.
 개마리 엄마리.
 깨목돌 花崗岩·閃綠岩等 酸性 乃至 中性深成
 岩의 通稱.
 개목버력 구덩이속에 나타난 깨목돌.
 개운산 개원산.
 개원산 ① Valley side·薄身(ウスミ) ② Valley
 side vein·薄身鍾(ウスミヒ), ③ 씻줄의 下盤,
 ④ 굿의 오른쪽.
 갱(坑) 달다 굿을 새로 잡다.
 거랑 乞糧.
 거품기계 (—機械) [—끼계] 浮選機
 꺾다 鑛山の 運營方針·作業方法·掘進方向等
 을 變更하다.
 꺾자 木手が 쓰는 “フ”字尺.
 건등 씻줄의 露頭. 特히 酸化帶를 가리킴.
 건천 건등.
 걸동 [걸뚱] 殘柱·Pillar.
 걸랑(乞糧) 버력탕속에서 쓸만한 甘石을 手選
 해내는 일.
 걸랑군(乞糧軍) [—꾼] 乞糧하는 사람.
 걸랑금점(乞糧金店) 乞糧만으로 主業을 삼는
 生業.
 검은 돌비늘 黑雲母·Biotite
 게추 Cage
 격지 層狀體 또는 層理.
 겹자 접자.
 겹 마구리 턱깅.
 고랑목 방앗공이끼리 부딪지 않게 걸치는 나무
 꼬리탕 鑛尾·Tailing

곡괭이 버력 구덩이안에서 곡괭이로 能히 파
 낼 수 있는 버력.
 곡은 샹 샹.
 곧은 바닥 샹.
 곧은 샹 샹.
 골쇠 溪谷底의 甘土.
 골물무 地面에 골(溝)을 파서 만들고 발을 더
 더어 바람을 일으키게 한 풀무의 一種.
 곰보석 (—石) 구세.
 곰보씻돌 구세.
 곰뽕대 ① 裝込棒, Stemmer, Stuffing bar, Ta-
 mping rod. ② 깡을 쫓기 爲하여 다이에 구멍
 을 내는데 쓰이는 杓챙이.
 곰돌 滑石과 臘石의 通稱.
 곰새기 褐鐵鑛(Limonite).
 곰색 곰새기
 과석 低品位의 甘石, 또는 有用鑛物을 含有하
 는 마목.
 과석(稜石) 씻줄의 露頭나 그 甘石.
 광(鑛)쟁이 鑛業者·鑛山技師·鑛夫
 패등 山등성이에 있는 건등.
 꺾다 含有된 有用金屬鑛物이 緻密치 못하다.
 구덩이 坑道.
 구뎡이 구덩이.
 구새 甘石속에 있는 곰새기·黑鉛·輝水鉛鑛·
 雲母鐵鑛과 같이 比較的 硬度가 낮고 부스러지
 기 쉬운 有色鑛物粒.
 구새끼다 구새가 緻密하다.
 구새먹다 구새가 조금 含有되다.
 구세 구새가 끼어 海綿狀(Skeletal)을 이룬 甘
 石 또는 마목.
 구혈(舊穴) 당구혈(唐久穴).
 굴 굿.
 굴막 (—幕) 굿막.
 굴문 (—門) 굿문.
 굴뚝쇠 Ore pipe or chimney
 굿 ① 구덩이. 特히 굿단속을 한 구덩이. ② 동
 발. ③ 굿틀.
 굿감독 (—監督) 坑內監督.
 굿 끄리다 保坑하다.
 굿단속 (—團束) 保坑.

굿덕대 (—德大) ① 坑別德大. ② 굿監督.
 굿막 (—幕) Miner's hovel
 굿 메기다 굿 끄리다.
 굿목 (—木) 坑木.
 굿문 (—門) 坑口.
 굿반수 支柱夫.
 굿복 (—服) 굿옷.
 굿옷 [구뎡] 坑內作業服.
 굿틀 Set, Frame, 枠(ワク: 日本國字).
 궤불미 손풀무.
 궤풀미 손풀무.
 규석 (鑠石) 층돌.
 금돌 (金—) [금뿔] 金鑛石,
 금방아 (金—) 搗鑛機.
 금산초 (金山草) 쇧줄의 건등近處에 나는 꼬사리科植物.
 금점 (金店) 金山·金鑛.
 금점군 (—軍) [—꾼] 金店을 經營하거나 거기에 從事하는 사람.
 금점판 金店界 또는 金店現場.
 금줄 (金—) [금뿔] 金鑛脈. 特히 含金石英脈.
 금혈 (金穴) 金坑 또는 金店.
 기계장 (機械場) 選鑛場.
 끼다 含有되다.
 길갈래 坑道網.
 김줄 [김뿔] ① 細脈. ②·尖滅脈·曲尾(Drag)
 ③ 分岐脈, ④ 副脈(Companion lode).
 김줄 [김뿔] 김줄.
 낙산(落山)하다 높은곳에 있는 일자리에서 낮은곳에 있는 選鑛場으로 鑛石을 運搬해 내리다.
 난장 (일) 坑內雜役.
 난장군 (—軍) [—꾼] 坑內雜夫.
 날강목치다 강목치다.
 날품 日給 또는 日工.
 남(南)마구리 南北脈 또는 南北方向坑道の 南押.
 남북맥(南北脈) 大體로 南北方向을 가리키는 鑛脈.
 남포 發破.
 남포 놓다 發破하다.

남포 불다 空發하다.
 남포질 發破作業.
 남포구멍 發破孔.
 남포군 (—軍) 發破工 또는 掘進夫.
 납 鉛(Lead)
 납돌 方鉛鑛(Galena).
 낮대거리 낮에 作業하는 대거리(甲班: 一方·晝番).
 내원산 개원산.
 너서래 너스래.
 너설개 너스래.
 너스래 坑井(Winze)入口에 架設한 保安用的 網, 格子, 板子等の 通稱.
 녹(綠) ① 銅綠, ② 金屬酸化物.
 녹(綠)나다 酸化되다.
 노다지 ① 肉眼으로 보이는 自然金粒. ② 高品位金鑛石. ③ 金鑛床의 富鑛帶.
 녹(綠)물 銅綠이 溶解된 물.
 놀란돌 浮石(ウキイシ).
 놋갑 朱錫.
 농탱크 ① 坑井. ② 坑內的 排水井
 누렁이 金
 누르다 질다.
 누은뺨 斜豎坑(Inclined shaft)
 늑줄주다 監督을 느추다.
 다이 이나마이트(Dynamite)의 준말.
 달동 [달뿔] 酸化物로 겹게 Coating 된 산골.
 달뿔 月給.
 당구혈 (唐久穴) [당구혈] 掘鑿年代가 不明한 오랜 廢坑을 말하며, 不規則하게 亂掘된, 이른바 너구리굴(狸掘=タヌキボリ)인 點이 그 特色이다. 흔히 鑛夫들은 “옛날 唐나라때에 뚫은 窟”이라고 說明하고 있는데, 啓蒙을 要할 問題라고 본다.
 당굴 (唐窟) [당뿔] 唐久穴.
 마다 ① 試料를 採取하다. ② 놀란돌을 除去하다.
 딱쇠 대장쟁이.
 딸딸이 ① Wheel barrow. ② Waggon.
 땅비늘 [땅뻘늘] 들비늘.
 대(代)거리 Shift·交代·方·番·班.

대립(代立) 病故 등이 있는 同僚鑛夫를 代身하여 代거리를 맡아주는 일.

대주(大柱) 金방아의 굴대받이기둥.

댕진구새 石墨(Graphite, Endogeneous) · 輝水鉛鑛(Molybdenite) · 雲母鐵鑛(Micaceous hematite = Specularite)과 같은 검고 潤澤한 구새.

더품기계 (—機械) [—끼계] 거품機械.

덕대(德大 · 德隊 · 德太) 分鑛業者.

덧다이 몸약보다 뒤에 넣는 다이.

떡 마개.

떡동발 외동발.

떨다 採鑛(拂=ハライ)하다.

데되다 쇠줄의 品位가 낮다.

땃목 (—木) 땃木.

도랑창 갈개.

독광(獨鑛) 鑛主自營鑛山.

돈내기 ①都給. ②能率給.

돌 ①石. ②鑛物. ③鑛石.

돌격지 地層.

돌고드름 鍾乳石.

돌리다 掘進方向을 바꾸다.

돌비늘 雲母.

돌솜 石綿.

돌쫄시 石手.

돌채기 도랑창.

등 동돌.

등돌 (동뜰) 母岩.

등록(銅綠) Calcanthite(膽礬 · 石膽) Pisanite.

동(東)마구리 東西脈이나 東西方向坑道の 東押.

동무분철 (—分鐵) 資本主없이 鑛夫끼리만 부패가 되어 分鑛하는 方式.

동바리 동발 또는 걸동.

동발 支柱.

동발군 (—軍) [—꾼] 곳반수.

동서맥(東西脈) 大體로 東西方向을 가진 쇠줄

동점(銅店) 銅山 · 銅鑛

동판(銅板) 混汞板(Amalgamation plate.)

되세물 물금에서 火金을 뽑고 回收한 세물

되수은 (—水銀) 되세물.

돼지주둥이 Foot valve.

드레통 Mine tub. <드레(=드리운, 懸垂한)+통(桶)>

돌일 鑿岩作業.

돌통 Hand barrow.

띠자 卷尺.

땃목 (—木) 땃木.

땃목 (—木) Cap, 冠(カムリ).

땃장 땃木.

마개 Tamping stopper, アンコ, 込物(コモノ).

마고리 마구리.

마구리 ①길쭉한 物體의 兩端面, ②坑道の 掘進前面 · 引立(ヒキタテ) · Heading. ③坑道の 掘進方向 및 方向性坑道.

마른금점 (—金店) 金山賣買仲介業 또는 金山化粧賣買業.

마사버럭 語意不明.

마목 脈石.

막일 [막닐] 雜役.

막일군 (—軍) [막닐꾼] 雜役夫.

막장 일자리 또는 마구리.

막장군 (—軍) [—꾼] 手掘夫 · 掘進夫 · 採鑛夫 · 採炭夫 · 鑿岩工 · 發破工.

막장일 [—닐] ①採鑛作業. ②掘進作業.

막장하다 ①採鑛하다. ②分鑛하다.

만감 品位가 높고 均一한 鑛石.

만광 分鑛을 준 鑛山.

만발탕 採鑛實收率을 높이기 爲하여 鑛體周邊의 버력을 떨어내는 일.

만석(萬石) Grizzly.

만천판 (—天板) 위로 텅빈 天盤.

말뚱버럭 坑內에 나타난 玢岩(Porphryte). 風化되던 흔히 양파(Onion)모양으로 剝剝되고 부스러지기 쉬운데서 온 表現임.

말목(抹木) 標抹.

말장(抹杖) [말짱] 標抹.

망 땃돌.

망골 黃鐵鑛의 粗晶. 산골보다 큼.

망기계 (—機械) [망끼계] Ball mill.

망치 Hammer.

맞구멍 貫通坑.

맞구멍내다 貫通하다.
 맞부패 단돌단의 부패.
 맹이 망치, 망치질
 먹을알 노다지보다 못한 高品位鑛石.
 메 柎樸·나무망치.
 메밀새 黑鐵.
 멀 Midling.
 멀목 멀을 選鑛하여 얻은 목.
 모루 鐵槌(Anvil).
 모루방망이 모루채.
 모루채 대장망치(Sledge hammer).
 모루치 모루채.
 모리 모루.
 모작(募作) 德大는 分鑛權者 또는 資金調達者로서, 鑛夫는 採鑛技術者로서 同一한資格을 갖고 構成된 동무分鑛方式의 分鑛.
 모작패(募作牌) 募作을 하려고 모인 牌.
 모잡배(募雜輩) 募作牌.
 목 精鑛, 特히 淘汰選鑛한 金精鑛.
 목담 廢坑에 쌓아 놓은 버럭더미.
 목대잡다 指揮하다.
 목대잡이 指揮者.
 목두(木頭) 木材를 켜고 남은 木片.
 목두깨비 木頭.
 목두기 木頭.
 목발 동발.
 목잡다 목을 選別採取하다.
 목젯이복구 Strake, Sluice.
 목판 Table.
 물방(沒放) 齊發.
 몸약(—藥) 강을 쪼은 다이. オヤ(親)タイ.
 못동 못정으로 破碎할 수 있는 동돌.
 못정 길이 5寸~1尺 되는 정.
 못정떨이 못정으로 하는 破碎作業.
 못정버럭 못정떨이한 버럭.
 무분철 語意不明.
 무자새 무자위.
 무자위 Pnmp.
 무진동 ①混合硫化鑛石(Sulphide ore) ② FeS 50%以上 되는 硫化鐵鑛石.
 무회계(無會計) 分鑛.

문짚 Three pieces set·三枚枰(サンマイワク)
 ·三枰(ミツワク)·本枰(ホンワク).
 물구멍 [물구멍] 下向穿孔한 남포구멍.
 물과석 透明한 차돌바탕을 한 과석.
 물금 (—金) Amalgam.
 물대 [물대] 무자위통.
 물동 [물동] 坑內에서 용탕을 막아놓고 있는 동발이나 버럭과 흙더미.
 물목 목젯이복구에서 잡은 목.
 물미 Pole 과 Tripod의 下端을 保護하려고 써 온 끝이 뾰족한 쇠.
 물방아 水碓(Pneumatic stamp).
 물알 水準器의 氣泡.
 물양꼬 물구멍에 양꼬로 쓰는 물.
 물약 몸약.
 물옥 水晶·Rock crystal.
 물차돌 透明한 차돌.
 물탕 복대기탕②.
 미서기 斜坑(Incline).
 미서기갱 (—坑) 미서기.
 미세기 미서기.
 밀 淘汰選鑛을 거치기前의 砂鑛.
 밀다 턱갱이나 쥐마구리를 掘進하다.
 밀다이 몸약보다 먼저 채는 다이.
 바다 ①踏前(フマへ). ②坵井底. ③堆積鑛床의 下限界面.
 바닥질다 掘下(Sinking)하다.
 바람기계 (—機械) [—기계] Air Compressor.
 바튼목 목, 特히 물목中 最上品.
 빠지다 ①놀란돌이 떨어지다. ②天盤이 무너져 만天板이 되다.
 받은목 바튼목.
 발판 방발밑을 피는 나무.
 밤대거리 [밤대—] 밤에 作業하는 代거리(丙班·三方·夜番).
 방구 바위.
 방발 脚柱(Post).
 방아 搗鑛機(Stamp mill).
 방아글대 [—대] 물방아의 中心을 가로지르는 굵은 軸.

방아찌다 搗鑛하다.
 방아채 방앗공이를 단 긴 자루.
 방아촉 (—鑛) 방앗공이끝에 단 무쇠鑛.
 방아확 臼.
 방앗고 방앗공이.
 방앗공이 토시목.
 방앗귀 방앗공이.
 방앗대 방앗공이.
 방애 방아.
 방우 바위.
 방틀긋 쟁에 메기는 井字긋.
 백각 차돌 特히 乳白色石英, 때로는 方解石을
 가리키는 수도 있음.
 백(白)과석 백각을 바탕으로 한 과석
 버럭 버럭.
 버레기 버럭.
 버럭 廢石(Muck · Waste · Spoil · Attle · Rubbish · Refuse · Debris) · 硬(ボタ) · 研(ズリ).
 버럭군 (—軍) [—꾼] Hand-picker.
 버럭탕 Dump · Pile · Heap.
 벌흙 表土.
 벽(壁)바닥 砂金坑底의 강목,
 벽채 호미와 비슷하나, 그보다는 혀와 자루가
 길고 約間 크다. 버럭이나 甘石을 다룰때에 쓴다.
 흙바라 하는이도 있다.
 벽채 벽채.
 벌줄 [벌줄] 酸化帶의 쇳줄.
 복대기 복대기.
 복대기 尾鑛. 特히 淘汰尾鑛(Tailing Slime).
 복대기탕 ①복대기의 沈澱池(Settling tank) ②
 靑化탱크(Cyaniding tank Pachuca tank).
 복대기간 (—間) 靑化工場.
 복대기금 (—金) 靑金.
 복대기삭이다 靑化製鍊하다(Cyanide).
 복대기 복대기.
 복대기간 복대기간.
 복사 (覆沙 · 福沙) 복대기.
 복새 복대기.
 복새통 (—桶) 복대기탕.
 뽕끼 轉轍機(Point)
 부싯돌 부싯돌.

부싯돌 燧石(Flint)
 부패 鑛業上的 利益을 같이하는 同業者.
 북(北)마구리 南北脈 또는 南北方向坑道の 北押.
 분광(分鑛) 鑛主와의 契約에 따라 鑛産操業을 代行하는 일.
 분철(分鐵) 德大料 · 利益配當金 · 支拂勞賃等을 現金이 아니고 一定한 比率의 産出鑛石으로 計算하는 方式. 普通은 5分鐵이며 鑛産이 好況일 때에는 2分鐵로 함.
 불달다 點火하다.
 불리다 鍛鍊하다(Temper).
 불미 풀무.
 비지 斷層粘土(Fault clay)
 비지통 Clay gouge. 粘土脈 (Clay vein).
 사발세근 沙鉢試金.
 사발시근 沙鉢試金.
 사발시금 (沙鉢試金) Panning test. 椀掛(ワンカケ).
 사발시재 沙鉢試金.
 산골 黃鐵鑛(Pyrite)의 結晶.
 산운산 상원산.
 산원산 상원산.
 살짱 Lagging · 矢板(ヤイタ) · 成木(ナルキ).
 삼간동발 語意不明.
 삼(三)부패 셋이 모인 부패.
 삼색 강 · 심지 · 다이의 總稱.
 삼 地金の 重量單位(=貫). 수동이 参照.
 상석(上石) 精鑛中 上品.
 상원산 ① Hill side, 厚身(アツミ). ② Hill side vein, 厚身鍾(アツミヒ). ③ 쇳줄의 上盤. ④ 긋의 왼쪽.
 상장 살짱.
 쌍망치 쌍망이.
 쌍망이 ① 두손을 使用하는 쇳망치 · 玄能(ケンノウ) · Double-hand hammer · Sledge hammer. ② 兩口鎚.
 쌍장애 장애틈 兩端에 各各 드레통을 달은 장애.
 새 含金子새.
 새잡다 복잡다.

색임통 북대기탕.
 색임통 북대기탕.
 씹 씹.
 씹 씹.
 씹 Shaft · 豎坑
 생동 未探掘鑛體.
 생동발 곁동.
 서덜 ①벗가의 돌 많은곳. ②Talus.
 서덜발 서덜.
 서들 서덜.
 서들발 서덜.
 서(西)마구리 東西脈 또는 東西方向坑道の西
 押.
 서벽돌 風化되어 무른돌.
 석금(石金) 山金.
 석돌 푸석돌.
 썩돌 푸석돌.
 썩버력 坑内に 버린 버력.
 석비레 푸석돌로 된 흙.
 썩은새 구새.
 선운산 상원산.
 선줄 豎脈 · 垂直鑛脈.
 설가다 貧鑛이 되다.
 성냥간 [—간] 대장간.
 세물 水銀.
 소구망이 소구멍.
 소구멍 上向穿孔한 남푯구멍.
 소금줄 백각으로 된 石英脈.
 소탕 風爐 · 冶爐.
 속돌 Pumice · 浮石(カルイシ).
 손잡에 Hand winch.
 손풀무 손으로 바람을 내게한 풀무
 쏘다 坑内에서 天盤으로부터 甘石. 또는 동돌
 이 무너져 내리다. 빠지다와 같은 概念이나, 빠
 지다가 崩落物을 主格으로 하는 말인데 反하여,
 쏘다는 盤岩을 主格으로 하는 點이 다르다.
 쓸짱질 Piling·Spiling·Fore poling·差矢法(サ
 シヤホフ).
 송창계 송창통.
 송창통 亞鉛箱(Zinc box).
 쇠차들 곱새기로 因하여 붉게 汚染된 차들.

쇠통 쇠줄의 斷面에서 쇠돌이 濃集된 部分.
 쇠폭 쇠줄의 폭(幅).
 쇠돌 金屬鑛石.
 쇠줄 金屬鑛脈.
 수동이 ①石油초통. ②鑛石의 重量單位 1수동
 이=10 째(貫) · 1 째(貫)=10 介=3.75 kg · 1介=
 10 兩 · 1 兩=10 돈(匁) · 1 돈(匁)=10푼(分)=3.
 75 g · 1 푼(分) · 10 厘 · 1 厘=10 毛 · 1 毛=3.75
 mg.
 수숫돌 舍金の 쇠차들.
 수은금(水銀金) 물금.
 수혈(水穴) 坑内에서 물이 나오는 바위틈.
 수혈(水穴)지다 水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다.
 썩돌 艾石.
 시근 金分.
 씨다리 砂金粒. 자박 参照.
 시운 새물.
 씨알 淘汰選鑛한 肉眼可視金粒.
 신穴 ①新鑛體. ②試掘坑道.
 신혈(新穴)뜨다 探鑛하다.
 심구멍 心拔(シンヌキ)孔.
 심마니 山蔘캐는 사람.
 심지 導火線(Fuse)
 심통 脈幅의 變化와 富鑛帶 및 貧鑛帶의 反覆
 이 甚한 鑛脈.
 아구 남포구멍의 자리 · 孔座 · Hole.
 아구내다 아구를 뚫기 始作하다.
 아긱대 아구를 낼때 쓰이는 정. 중대 · 장대
 参照.
 안돌이 ①絶壁길에서 낭떠러지로 튀어 나온곳.
 ②坑道の 廻折地點에서의 內側壁.
 안아맹이 어깨높이 以上되는 곳에 남포구멍을
 뚫을때, 돌아서서 어깨너머 뒤로 망치질을 하는
 手掘穿孔法의 一種.
 안아맹이 안아맹이.
 알판 방아확판에 까는 鐵板.
 앞바닥 砂金坑掘進先의 바닥.
 앞장 앞바닥.
 애석(艾石) 京畿道 江華産 花岡岩.
 약(藥)재다 爆藥을 裝填하다.
 약지르다 藥재다.

양(兩)목도 두사람이 하는 목도.
 어랭이 작은 통짜리 삼태기의 一種. 甘石과 버
 력을 다룰때에 씀.
 어서기 새로운 富鑛體의 開始部分
 어세기 어서기.
 어처구니 Crusher.
 엄마리 장미에 떠내리는 砂金을 한곳으로 몰
 아서 잡아내는 일.
 연삼(鉛商) ①德大에게 資金을 대주는 사람.
 ②禁探期에 隱密히 採銀을 하였던 鉛鑛業者.
 연철(鉛鐵) ①方鉛鑛(Galena). ②方鉛鑛과 黃
 鐵鑛의 混合鑛石.
 오분철(五分鐵) 產出鑛石 및 金の 5分의 1을
 供納하는 分鐵方式.
 올려치다 ①안아맹이질하다. ②掘上하다.
 외동발 打柱(ウチバシラ)・Prop.
 외망치 외맹이.
 외맹이 ①한손을 쓰는 망치. ②片口鎚.
 요동복구 Shaking trough.
 용탕 水溜・Plash.
 울다 發破로 因하여 금이 가다.
 원광주(元鑛主) 分鑛을 준 鑛主.
 은점(銀店) 銀山・銀鑛.
 이분철(分鐵) 產出鑛石 및 金の 半을 供納
 하는 分鐵方式.
 이불줄 [—줄] 水平鑛脈.
 일자리 採掘場 또는 採掘面・Working Place・
 Face・Stope・切羽(キリハ).
 자국금 자옥금.
 자박 砂金の 큰 알맹이. 씨다리 參照.
 자벽 자박.
 자옥금 品位變動이 甚한 砂金層.
 자옥금 자옥금.
 잡다 ①새로 일자리를 만들다. ②새로운 鑛體
 에 到達하다.
 잡은것 採鑛道具의 總稱.
 장(長)장 [—때] 남포구멍을 낼때 中대 다음
 으로 가장 깊이 뚫을때 쓰이는 정.
 장벽 (—壁) Wall・盤(バン).
 장애 손장애.
 장앗간 Hoisting room.

장애기계 (—機械) [—끼계] Hoist.
 장밋줄 Winding rope・捲綱(マキズナ).
 장애를 장애.
 장애를 장애.
 장정기계 (—機械) [—끼계] 鑿岩機.
 장판(壯板)쇠 (—쇠) 手選(Hand picking)할
 때에 망치로 鑛石을 부수기 爲하여 밑에 바치는
 鐵板(Mucking plate).
 재구새 灰色 粉狀의 구새.
 재무진등 灰色의 무진등.
 재바다 ①坑底의 新富鑛體. ②砂金坑의 灰色
 바다.
 재바닥줄 脈狀의 재바닥.
 재판 精鍊(Refining)
 재다 坑道를 掘進하다.
 저녁대거리 저녁녁에 作業하는 代거리(乙班・
 二方)
 적 적.
 짝 鑛滓(Slag).
 점(店)・점판 鑛區・鑛業所・採鑛場.
 접자 折尺.
 정 [저영] 鑛(Chisel).
 정철(正鐵) ①高品位鑛脈. ②무진등줄.
 조고 [조오고] Chute.
 조고통 조고.
 조구 [조오구] 조고.
 조구통 조고.
 조대흙 질흙.
 주먹동발 작게 틀짜인 동발.
 주석 錫(Tin)
 주레동 미서기의 굵틀.
 주레장 木積(コヅミ)・Crib・Cogs・Cogging・
 Chock.
 줄 鑛脈.
 줄마노 (—瑪瑙) 縞瑪瑙.
 줄버력 鑛脈과 平行한 脈狀의 버력.
 줄동 脈岩(Dyke).
 줄자 間繩(ゲンナワ)・Cloth・rope.
 줄통 ①동돌에 對한 줄을 말함. ②脈幅.
 줄편이다 줄풀리다.
 줄풀리다 쇧줄이 좋아지다.

줄흙 低品位帶.
중하산(中下山)하다 落山하다.
중(中)대 남포구멍을 낼때 아곳대의 다음으로 쓰이는 정.
취마구리 Sub-cross cut.
증정.
지(指) 줄통의 單位.(1지=2cm.)
지들이 ①絶壁길에서 絶壁안으로 굽은 곳. ②坑道の 廻曲地點의 外側壁.
지질버력 가장 品位가 낮은 버력.
진죽(粥)버력 질척한 風化土砂가 섞여 죽같이 된 버력.
진흙 泥土·Mud.
질통 (—桶) 뿔방한 나무통(負角). 甘石과 버력을 運搬하는데 씀.
질통군 [—꾼] Mucker.
질흙 陶土·Porcelain clay·China·clay.
짐 盤壓·Earth pressure.
짐받다 짐을 받다.
짐오다 짐이 더해지다.
찜줄 [—줄] 김줄.
짚다 ①掘下하다. ②坑口를 開設하다.
차돌 石英·Quartz.
찰흙 찰흙.
찰질 찰흙.
찰흙 粘土·Clay.
찰줄 ①採算이 맞는 鑛脈. ②分岐脈에 對한 本脈.
쳐올리다 掘上하다.
천판(天板) 天盤.
철(鐵)어랭이 쇠줄로 엮은 어랭이.
철장(鐵場) 製鐵場.
철(鐵)확 쇠로된 확.
철동 ①硫砒鐵鑛·Arseno-pyrite. ②무진동.
청석(靑石) ① 暗色岩石의 通稱. ② 角閃岩·Hornblendite. ③玢岩·Porphyrite. 말뚝버력 參照.
층(層)새 ①金品位. ②色數로 나타낸 標準金.
층돌 [—뜰] 층셋돌.
층셋돌 試金石·Lydian stone·Lydianite·Basanite·Touch stone.

치다 ①整掘하다. ②쳐올리다.
칠통 질통.
캔자리 採掘跡·拂跡(ハライアト)·Gob·Goaf.
켜 藥理·Lamination.
케 커.
코쇠 山麓의 砂金層.
탁개할 태깅.
탁깅 태깅.
탁동 斷層. 特히 쇠줄과 平行한 斷層.
탐상이 탐생이.
탐생이 Derrick·櫓(ヤグラ).
탕 鑛石運搬往復數의 單位. 1往復이 한탕임.(用例: 한탕 뛰다.)
태깅 Cross cut·循入坑·大切坑(オオキリコウ) 立入(タテイレ). 흥갱 參照
털다 떨다.
토금(土金) 原地堆積金鑛床.
토록 줄에 隣接한 交代鑛石.
토(土)바닥 土砂로 된 砂金坑底.
토시목 Tappet·방앗공이·杵.
토점(土店) 土金鑛.
통 줄통. 쇠통·쇠뿔 參照.
통가리 鑛脈을 切斷한 斷層. ②鑛脈을 橫斷한 岩脈.<통+가리(가림=遮斷)>.
통갱 Adit.
통목 運鑛夫.
통천(通天) 通天板.
통천판(通天板) Raise·切上(キリアゲ)·ノボ(昇)リ.
통혈(通穴) 通天板.
통혈내다 上部坑道나 地表와 貫通하다.
튀다 淘汰結果 金이 없다.
물각대기 四枚杵(ヨマイワク).
파리통새 石墨(Graphite)으로 된 구새.
판쇠 均質로 널리 分布한 砂金層.
평(平)바닥 水平坑底面.
평철(平鐵) Clinometer
표말(標抹) 測點이나 其他 必要한 地點을 나타내기 爲하여 꽂는 말뚝.
푸석돌 風化되어 푸석푸석하는 花崗岩 또는 片麻岩.

풀무 風箱·대장간에서 소탕에 바람을 불어 넣기 爲하여 쓰이는 風具로서 그 構造는 실린더(Cylinder)의 구실을 하는 四角木箱속에 가장자리를 踏의 깃털로 둘러댄 四角木板이 피스톤(Piston)구실을 하게 되어있다. 손풀무·골풀무가 있다.

품 代거리 또는 품삯.

품삯 工賃·勞賃·Wage.

하꼬띠기 運鑛勞賃을 鑛車當單價로 計算하는 一種의 能率給制. <(日)ハコ=箱>

하금 靑金.

하석(下石) 低品位鑛石.

한금줍다 ①많은 金을 採取하다. ②큰 金을 캐다.

한땀금점 (—金店) 砂金鑛山 또는 土店.

한동넙기다 貧鑛帶를 벗어나 다시 富鑛帶를 まで하다.

한동먹다 富鑛帶가 끊어지고 貧鑛帶가 되다.

함주 함지.

함주탕 함지탕.

함지 淘汰盤·Vanning pan.

함지질 함지로 Panning 하다.

함지질꾼 [—꾼] 함지질하는 사람

함지탕 ①함지질하는 貯水탱크. ②함지질해서 나온 복대기·Pan tailing.

행탱이 ①泥鑛·Slime. ②坑內에 沈積된 鐵分이 영긴 土砂.

헤석 [헤에석] 鑛染鑛石·Impregnated ore.

혈(穴) ①鑛體. ②坑(接尾語).

홀구멍 [홀구멍] 孔尻(アナジリ).

홀개함 홀갱.

홀갱 Drift·鍾押(ヒオシ). 택갱 參照.

홀마구리 홀갱.

홀줄 [홀쫄] 참줄.

화금(火金) 물금이나 하금을 재판하여 얻은 金.

화금분철(火金分鐵) 火金으로 定한 分鐵.

화점(火點)하다 火金を 얻기 爲해 加熱하다.

확 방아확·搗鑛機의 질구(臼).

확판 臼底.

황감 [黃甘] 황동.

황(黃)구새 黃褐色구새.

황동 ①곰새기로 붉게 汚染된 甘石, ②酸化된 甘石.

황동곰새기 微粉狀의 황동.

흰돌 石灰岩.

흑철(黑鐵) 閃亞鉛鑛·Sphalerite. 메밀새 參照.

흙격지 土層.

흰돌비늘 白雲母·Muscovite.

[參考文獻]

1. 金聖浩(1936)鑛山經營法: 서울 晴嵐社.
2. 朴奉石(1954)國史精解: 서울 東文社.
3. 한글학회(1957)큰 사전(4판): 서울 을유문화사
4. 문교부 과학기술용어 제정위원회(1958) 과학기술용어집 제 6집, 전기공학·채광학 용어집
5. 丁榮植(1964)採鑛學·發破學: 서울 寶晉齋
6. 趙芝薰(1966)放牛閑話④ “語源數題”: 新東亞 1966年 6月號(通卷 第 22號) p. 256.
7. 渡邊 貫(1935)地學辭典: 東京 古今書院
8. 岩崎清七(1939)採鑛學: 東京 財團法人國民工業學院
9. 伊藤尙(1939)一般冶金學: 東京 共立社.
10. 友田宜孝(1943)工業化學要覽: 東京 同文書院
11. 後藤誠(1944)朝鮮特殊鑛物: 서울 博文書館.
12. 土田 定次郎(1944)朝鮮鑛床論: 東京 霞ヶ關書房.
13. 木下 龜城(1952)鑛物辭典: 東京 風間書房.
14. 渡邊 武男(1961)鑛床學의 進歩 4版 東京 富山房
15. 淺野五郎(1962)鑛山地質ハンドブック: 東京 朝倉書店.
16. Hess, F.L.(1919): Am, Journ, Sci., 48. p, 377.
17. McKinsty, H.E.(1948) Mining Geolog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8. Batemann, A.M.(1950)Economic Mineral Deposits (2nd ed.):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 Kauh K.M.(1964)New English-Korean Dictionary: 서울 語文閣.
20. 尹城淳(1952)韓國鑛業誌: 大韓重石鑛業株式會社